

하나님의 존재 방식

- 이영찬 목사

요즈음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의 신비한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배경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며, 사고방식과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워져 가는 것이 신비할 따름입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을까?' 그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에 말문이 막힙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일관된 신경 조직에 의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공동체성은 교회만이 아니라 선교회도 하나됨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움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선교사라고 해도 혼자서 사역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선교회 본부와 각 지역의 리더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달리티(Sodality)와 모달리티 (Modality)의 특성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 존재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신학적 이론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믿어지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고백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에 아주 중요한 근본적 원리가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존재방식은 무엇이며, 선교공동체가 배우고 따르며 지향해야 할 존재 방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상호의존적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自存者)이십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소개하셨습니다(출 3:14).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 이다(에고 에이미)'로 소개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표현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품속에(κόλπον)'라는 단어는 사랑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누구를 의존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창 1:26). 하나님께서 통치의 대리자인 인간을 만드실 때, 서로 의논하셨습니다. 한 뜻으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선교공동체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상호의존의 방식으로 유지되며 세워져야 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 15:22)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지니라”(잠 20:18)

공동체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기준은 함께하는 협력(partnership)입니다. 성숙함은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 함께 동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셨습니다(엡 1:3-14).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죄인들을 대속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인 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팀 사역입니다. 원리는 알고 훈련도 받았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탁월함, 능력, 리더십, 경험도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동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높임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고 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4-5)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가졌던 영화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상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 존중, 찬양하는 것입니다. 서로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섬기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 앞에서 아빠 엄마가 재물을 부립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른들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먹는 모습만 보아도 부모는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현대 사회의 슬픈 현상 중 하나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미디어의 영향으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왕따 시키거나 바보로 만들고 즐거워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공동체성은 서로를 인정하고 높이고 칭찬해 줄 때 이루어집니다.

세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중심이 아닌 철저한 타자 지향적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가 높고 낮은 구분이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고백합니다(요 6:38). 자신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음을 고백합니다(요 5:30). 아버지께 순종함이 당신의 양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요 4:34).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겐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이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행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위격은 아무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 가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제각기 자원해서 다른 두 위격 중심 주위를 돌며 두 위격을 즐거워하고 흠모하며 따릅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 상호 내주)’라고 지칭했습니다. 여기서 ‘춤을 추다’ ‘주위를

돌다'라는 영어 단어 'choreography' 나왔습니다. 상대를 영화롭게 하고 환희 가득 찬 사랑을 쏟아붓는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에 존재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관계 속에서 인류 구속의 대역사를 이루셨고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서로를 위하시고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춤을 추시며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된 공동체는 행복하고 즐겁고 영화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요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입니다 (고후 13:13). 축도 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선교공동체 안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